

아! 봄이다.

상큼한 봄내음이 스며들고 마당 한 켠에서는 바둑이가 살랑이는 봄 내음에 취해 즐기고, 뒤뜰의 앵두나무, 석류나무, 살구나무..... 그저 스트레스와는 거리가 있고 영원히 행복할 것 같은 풍요로움.

따르르릉!

안전사고 출동! 안전사고 출동!

방화2동 아파트 건축공사장 추락사고.

나도 모르게 현실로 돌아왔다. 이 순간 봄내음은 사라지고 어느 새 출동차량 안에서 현장을 그리기 시작했다.

‘현장은 어떻게 생겼을까? 많이 다쳤을까? 구급차량은 몇 대가 올까?..’

긴박한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정제된 많은 차량사이를 곡예하듯 미끄러져 현장에 도착했다.

안전모를 쓴 많은 사람들 속에 한 명의 인부가 쓰러져 있고 모두들 안전부절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경황없는 모습.

작업 중 7m높이에서 발을 헛디더 추락해 다리가 골절되고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여 인근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 상황 종료..

나는 한 가정으로 한 직장인으로 현재에 있으며 매일 화재, 구조, 구급현장을 직시하는 소방관이다.

2000년을 돌아켜보면,

7월 14일 경부고속도로에서 수학여행 관광버스 추돌 사고로 다수 인명피해.

8월 24일 여천공단에서 폭발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19명이 중경상.

9월 27일 경기 시흥시 시화공단에서 LPG가스통이 폭발 3명 사망 15명 중경상.

10월 18일 전북 장수 88고속도로에서 단풍객 관광버스 충돌 사고 20명 사망 7명 중상..

이렇게 거의 매일 여러 유형의 사건사고를 접하면서 우리 직장인들의 기여움에 우울할 때가 있다. 매일 TV나 신문매체를 통해서 보고 듣는 사건사고에 나는 깊이 파묻혀 있다.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지만 정말 안됐다.

너무나 크고 많은 사고에 묻혀 소멸되어지는 안전불감증.

그리고 숨막히게 돌아가는 직장에서 목표달성을 위해 죽어라 일하고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지친 몸으로 가정에 돌아가면 건강한 남편, 멋진 아빠가 되기 위한 제왕의 탈춤을 시작한다. 자기전까지..

잠들기 전에 잠깐은 생각한다. 아! 피곤하다..

스트레스와 한 모금의 담배연기와 거나하게 취해가는 술잔속에서 지쳐가는 육체..

▷ 하루 평균 29명

이 수치는 우리 서울시 강서구에서 작년(2000년) 한해동안 구급차량 4대가 이송한 하루 평균 이송인원(10,414명)이다.

▷ 하루평균 1.7명

직장에서의 안전사고로 인해 구조한 인원이 633명으로 하루 평균 2명.

이것은 강서소방서에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제외한 구조, 구급처리 현황인데 타 기관이나 병원의 수치를 감안하면 정말 아찔하다.

오늘도 우리 강서소방서에서는 30여명의 인원이 어떠한 사유로든지 병원에 실려가고 있다.

지난 30년간 고도의 과학기술과 급속한 산업의 발달을 이루어 왔으며 삶의 질에 대한 욕구에만 증진하였으며, 호황기 때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관심의 대상에서 소홀되어 그 결과 대형사고 1호인 1971년 대연각 호텔화재를 시작으로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대구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희생되는 대형 재난으로 수백명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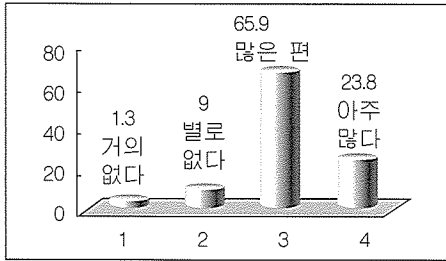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 LPG충전소 폭발사고 등 화재, 폭발, 안전사고는 끊임없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그것은 경기불황에 따른 감량경영의 여파로 안전관리 조직이 와해되고 산업계해 예방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실정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의식도 점점 실추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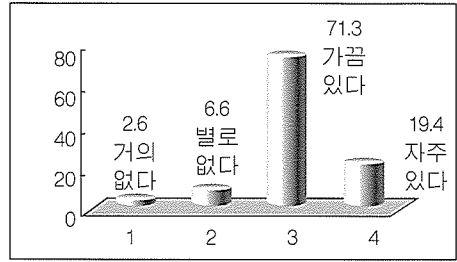
작년 강서소방서에서는 학생과 직장인 등 97,509명에게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그러나 안전사고는 늘어만 간다.

필요성은 인식(65.9%)하면서도,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불안감(71.3%)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현실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파묻혀 그냥 지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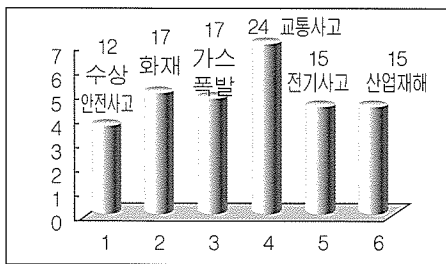
# 안전사고, 이렇게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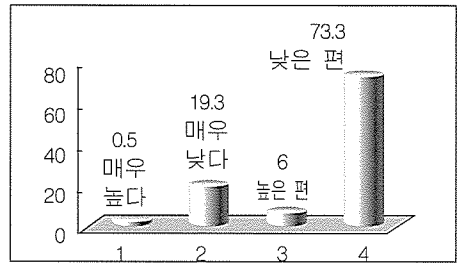
〈그림 1〉위험 요인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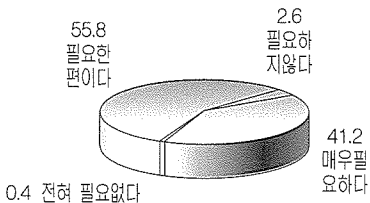
〈그림 2〉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불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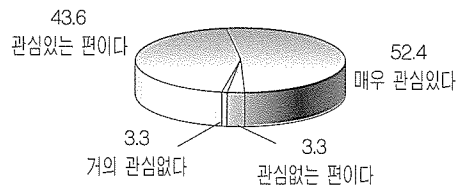
〈그림 3〉사고 유형별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그림 4〉안전 위식 수준에 대한 평가



〈그림 5〉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



〈그림 6〉자녀의 안전사고 예방 관심도

나만은 괜찮겠지...  
 우리 가정은 괜찮겠지...  
 우리 직장은 괜찮겠지...  
 일반 상식처럼 대형사고의 연대나 사망인원을 아는 것이  
 중요한지, 나의 가까이에 도사리고 있는 사건사고를 예방하  
 는 것이 중요한지 「나는 알아야 한다」나에게도 불감증이 있  
 다는 것을.  
 아! 상큼한 봄이다.  
 이제 여유를 찾아야 한다. 잃어버렸던 여유를...  
 공액수 문제로 치부되어버린 어쩔 수 없는 직장에서의 안  
 전사고는 치유될 수 있다.  
 아주 자그마한 관심과 여유를 찾는다면,  
 상큼한 봄내음이 스며들고 마당 한편에서는 바둑이가 살

랑이는 봄내음에 취해 줄고, 뒤뜰의 앵두나무, 석류나무, 살  
 구나무...  
 스트레스가 줄고 영원히 행복한 나와 가정과 직장에서의  
 풍요로움을 감상할 수 있다.  
 대형사고는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  
 안전사고는 모든 풍요로움을 앗아간다. 타들어가는 화염  
 속에서 남는 것이 없듯이...  
 「나는 알아야 한다」  
 자그마한 관심과 여유를 찾아야 직장과 가정과 건강과 풍  
 요로운 마음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72

지 명 천 (강서구 소방서 홍보실장)